

정보교환용 조선글 부호 KPS 9566-97의 분석

변정용^U

동국대학교 컴퓨터학과
byunjy@dongguk.ac.kr

An Analysis of KPS 9566-97 Korean Character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Jeongyong Byun^U

Dept. of Computer Science, Dongguk University

요 약

분단으로 빚어진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는 한글과 조선글이라는 쌍둥이의 탄생으로 연결되고, 이들 둘은 자모순이 다르고 음절 부호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정보교환을 함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이제 남북경협이 본격화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정보교환의 급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최근 개정된 조선글 두바이트 부호 국규 9566-97의 분석을 통하여 양 문자를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모순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것으로 이들 남북의 자모순 및 정보교환용 문자부호 표준화를 위하여 몇 가지 모색을 하고 방법을 논한다. 또한 남한인 일반도인 국제 문자부호 표준에 대하여 북한의 수정요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과 조선글 두바이트 부호안을 종합하여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허배선생의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자모순 모색의 가능성을 논한다.

1. 서론

1945년 남북분단으로 사회전반이 반세기가 넘게 이질화되고, 1933년 조선어학회가 만든 한글맞춤법 통일안도 이질화되어 가는 불행을 맞게 된다. 북한에서 문자는 조선글이라 하고 더구나 자모순을 달리 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간의 문자는 정보화 시대를 앞두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이제 남북경제협력의 시대가 개막될 기반이 형성되고 본격적인 확대는 시간적인 문제인 만큼 남북 정보교환을 위한 문자 부호 표준화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한글과 조선글의 어순이 서로 다른 점이다. 특히 현행 정보교환용 한글 및 조선글 부호에서는 음절에 부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5,7] 있어서 양측의 현행 정보교환용 부호계는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ISO 등 국제표준에는 남한의 부호계가 반영되어 있어서 북한도 정보교환용 조선글 부호를 제정하여 ISO SC2에 계속해서 수정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ISO는 북한의 안을 거부하고 있어서 북한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정보교환용 한글 부호 KS X 1001은 1989년 제1회 본 학술대회의 김충희의 연구[2]에서 336 음절이 부족하여 현행 표준정서법에서 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제

기되었고, 또한 언어처리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절실하다. 앞으로 한글 문자 관련 응용이 문자처리 중심에서 언어처리 분야 응용이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선은 피할 수 없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가 수 조원에 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규 9566-1997[7]의 분석을 통하여 남북이 만족스럽게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문자처리 뿐만 아니라 언어처리 응용 분야 등 모든 응용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한글정보처리 기술 및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우리의 민족고유기술로 육성시킬 수 있는 통일 한글부호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정보교환용 조선글자 부호 연구는 1994년 중국 연지에서 열린 코리언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주로 알려져 있다. 김명규[4]의 연구에서 정보교환용 조선글자 표준화에 대한 기본 방향 등이 소개되고 있다. 그 실체는 1996년 회의에서 조선 국규 9566-93을 직접 자료를 보았다. 한글 음절이 2420자로 한글보다 70음절이 많고, 한자 부호가 없이 조선글자만 표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 1996년 대회에서 문영호[8]의 자모순서, 최병수[9]의 옛글자 연구가 있다. 여기서 남북간에 논

의된 것은 자모 순서, 자판 배열, 문자의 부호화, 용어 등이며 자모 순서는 남한은 자형순, 북한은 음가순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고, 자판 배열은 상호 접근이 이루어져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고, 부호화는 자모순서의 의존적인 문제이며, 용어는 합의를 이루어 1999년에 출판을 하게 되었다. 국규 9566-97은 국규 9566-93을 크게 개선하여 이제는 KS X 1001과 자모 순서를 제외한 문자의 종류 및 수에서 거의 유사하다. 그 외에 변정용[3,10]의 우리글 코드 연구와 현행 국제부호화에 대한 문제 지점에서 남북 문자 코드 표준화에 대한 제안이 있다.

3. 정보교환용 조선글자 부호와 국제화

3.1 용어 및 특수 문자

1993년 정보교환용 조선글자 두바이트 부호는 1996년 엔지 회의에서 적용범위 등의 서론부 없이 부호계 부분만 공개되었다. 이번에 입수한 1997년 개정안은 정보교환용 부호계가 갖는 일반적인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어 출판되었다. 먼저 첫째 쪽의 오른쪽을 보면 승인기관과 승인 날짜와 실시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왼쪽에는 '국규 9566-97'이 명기되어 있고, 그 아래는 '국규 9566-93 대신'이라 하여 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분류 ㅅ 93'이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을 볼 때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었으며 국가 규격의 분류체계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규격제정연구소가 전문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생산자들과 힘을 합쳐 전자계산기들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며 전자계산기 응용분야를 넓혀나감으로써 인민경제발전과 기술혁명수행에서 보다 큰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범위, 용어, 도형글자의 종류와 구성, 부호 순으로 기술하였다. 완성형과 조합형 부호에서 자모 순서를 조선글자의 순서로 배열하여 남한과 다르게 하였다. 특수문자의 경우 눈에 띄는 것은 조선노동당 마크 등이 포함되었고 조선자모글자에는 존함강조글자라는 것이 특이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김일성 김정일 이라는 6글자이다. 그리고 조선자모글자에는 옛글자와 정침 음 치두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자모순서는 음가순인 북한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3.2 조선글자 및 조선한자

완성형 조선글자와 조선한자를 두 바이트 부호에 표현한 것을 보면 정보교환용 한글 두 바이트 부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규 9566-93과 97의 차이는 비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조선글 음절자 부분은 국규 9566-93 정보기술용 조선글자의 부호의 1수준의 글자에 사용빈도가 높은 글자 259자를 추가하여 2679자로 하였다. 이 규격에서는 종전의 제2수준을 쓰지 않는다. 조선한자는 4653자를 해당한자의 조선말 발음순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소리가 같은

조선한자는 그것들을 부수순, 획순에 따라 배열하였다. 같은 조선한자에 대하여 소리가 여러 가지인 경우 대표적인 소리에 따라 배열하였다. 사용자 정의글자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에서 완전한 호환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글자의 경우 음절은 한글보다 329자가 많다. 이것은 이미 1989년 김충희의 연구[]에서 주장하였던 일상 언어 생활에서 필요한 글자 가운데 추가로 요구하였던 수인 336자와 유사하다. 여기서 조선글자는 한글 2350 음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자는 남한이 4888자이고 북한은 단순 숫자에서 보면 235자가 적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한글 부호에만 있는 한자는 175자이고 조선한자는 81자이므로 표면상으로는 256자가 다르다.

글자의 배열에 있어서 1행부터 15행까지는 특수글자, 미정의, 사용자정의 영역A로 배정하였고, 16(B0A1) ~ 44(CCCE)행까지 조선글 음절자 '가'부터 '헬'까지이고, 45(CDA1) ~ 94(FECE)행까지 조선식 한자 '伽'부터 '矮'까지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한글의 경우 16(B0A1) ~ 41(C9FE)행까지 배열되어 있고, 42(CAA1)~93(FDF1)행까지 한자가 배정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3.3 남북 학술교류

북한이 문자 부호계의 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정보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이에 대한 관심이 늦은 관계로 국제 문자부호계에는 모두 남한의 국내표준안 일변도로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남북간의 교류가 막혀있었던 점과 산업규모 면이나 대외교류의 양적 질적인 모든 면에서 북한이 열세에 있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1994년도 엔지에서 "코리언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를 처음 치르면서 노출되었다. 그 후 1995, 1996년 3년간의 회의 결과는 상호간의 의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용어분과에서 공동 용어집을 발간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11]. 그 후 1999년 회의는 북한이 참석하지 못하였고, 2001년 2월에는 북한이 참석하였지만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간의 책임 있는 선에서 결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여기서 북한이 이러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현재 국제표준화에서 남한 일변도의 규격에 북한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에 있었다. 이에 대한 노력은 결국 국제회의에 최근 들어서 북한도 열심히 참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참석 열의를 보아도 그것은 충분히 파악되는 것이다. 여기서 남한은 현재 상황에 대하여 북한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다.

3.4 북한의 수정 요구 내용

2000년 3월 23일에서 25일까지 북경에서 ISO/IEC JTC1/SC2 국제문자표준규격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는 북한에서 조춘휘 규격화위원회 서기장, 김명규 조선컴퓨터센터 실장을 비롯하여 6명이 참석하였고, 북

한이 제안한 안은 5개항으로 아래와 같다.

1) 본 위원회(북한의 규격화 위원회)는 부록 A와 같이 조선글 조합문자의 수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조선글 조합문자(1100-11FF)의 문자 집합에 8 문자를 추가해 주기를 제안한다. 둘째, KPS 9566-97과 같은 배열 순서로 8 문자를 배열한다.

2) 조선글 음절의 배열 순서를 제안한다. ISO 10646-1 (UCS2)에 있는 현대 한글문자의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초성 (19): ㄱ ㅋ ㄴ ㄷ ㄹ ㄴ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 중성 (2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 종성 (27): ㄱ ㅋ ㄴ ㄷ ㄹ ㄴ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이상의 배열은 남한의 KS X 1001-1995의 배열 순서와 같다. 하지만 KPS 9566-97과 GB 12052-89에서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초성 (19):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 중성 (2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 종성 (27): ㄱ ㅋ ㄴ ㄷ ㄹ ㄴ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초성, 중성에서 조선글은 ㅁ이 뒤로 가기 때문에 ㅁ만이 순서가 일치하고, 중성은 ㅏ만이 일치한다. 이것은 개별 음절의 부호화 표현과 정보교환에서 혼란을 일으킨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조선 국규 국규 9566-97을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국규 9566-93의 자료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과 1997년 안이 어느 정도 다른지를 알 수 없었다. 이번 회의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남북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국제표준구에 제출하였다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본다. 이미 1996년 엔지에서 합의한 내용도 있고 그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었다. 비록 합의안이 양쪽 정부에 구속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북이 계속 노력을 하지 못하였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북한이 제안한 내용은 모두 5개 항목인 것 같다. 이에 대하여 필자 개인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5)번 항은 북한이 엔지 회의에서 줄곧 주장하여 오던 바와 마찬가지로 Hangu이 한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남북이 각각 건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사용한 용어라 한국 측에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의 뜻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Korean Character"로 하자는 북한의 의견은 수용 가능한 안이라고 본다.

둘째, 1)번 항목에서 8개 문자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글자인지 알지 못한다. 알고 계시다면 그 글자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알려 주시면 고맙겠다.

(답변)제가 추측하기에는 그 8글자는 초성에 된소리 5개와 ㅎ, 그리고 중성에 된소리 2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저

의 추측이 맞다면 중성에 11개의 복모음을 추가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셋째, 북한에서 제안한 2)번 항목은 자모의 배열 순서 문제를 말하고 있다. 1996년도에 합의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다. 남한은 배열이 자형순이고, 북한은 음가순이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996년도에 제가 배열 순서 조(홍윤표, 최희수, 문영호 선생)에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 그 때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미 제안하였던 "정음형" 한글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남북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자모순 배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넷째, 3)번 항목에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심볼 문자를 추가하는 것은 공간 여유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4)번 항목에서 KPS 9566-97에 포함된 조선글에 대응하는 한자를 추가하는 문제는 CJK 한자의 위치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가능하리라 본다.

문제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 초성에서 된소리 글자와 ㅎ이 놓인 곳이 다른 점
- (2) 중성에서 복모음이 놓인 곳이 다른 점
- (3) 종성에서 된소리가 놓인 곳이 다른 점

이상 문제는 정음형[3]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1) 정음형은 훈민정음 해례에서 제정한 초성 17자와 중성 11자 종성 17자를 코드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따라서 남북한의 자소(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배열 순서의 문제는 정음형에서는 초성에 ㅎ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 초성에서 ㅎ의 문제는 초성 ㅎ 다음에 ㅎ을 한번 더 추가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

(3) 이제 복모음들과 복자음들의 배열 순서문제는 남북이 각각 자신들의 구현단계에서 그 순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안에서 유리한 것은 남한의 자형순이다. 북한의 음가순 배열은 복자음과 복모음들이 뒤쪽에 가도록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3.5 북한의 규격화 위원회

북한의 표준화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따라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의 근거는 1997년 출판된 조선인민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규격에서 정보기술분야에 속하는 "정보교환용 조선글자의 두 바이트 부호" 규격의 출판물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서술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부분의 문건은 당의 지시 또는 교시를 먼저 서술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규격은 '국가규격제정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작성자는 현재 조선컴퓨터센터 소장인 김명규로 되어 있고 심의는 정평호, 편집은 변광빈으로 되어 있다. 발행부수가 250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서가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현재로 보아 북한의 규격은 남한과 비슷하게 4~5년 정도마다 규격을 개정하는 것 같다. 정보교환용 부호인 국규 9566-93은 1993년도에 제정

되었다가 1997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규격은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전체적인 절차를 보면 규격을 작성하는 그룹이 있고, 이를 심의하는 그룹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는 3단계의 절차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국가규격에 대하여 남한은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할 하지만 북한은 국가규격제정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일차는 다음과 같다.

- o 1997년 4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승인
- o 1997년 4월 20일 국가규격제정연구소 인쇄
- o 1997년 4월 25일 국가규격제정연구소 발행
- o 1997년 5월 1일 실시

여러 문헌에 따르면 조선컴퓨터센터의 기능 가운데 소프트웨어 표준화와 규격화라는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이곳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선컴퓨터센터의 구성원의 숫자는 약 800여명에 이른다 한다. 더 명백한 것은 정보교환용 조선글자 부호를 작성한 책임자가 바로 이 센터의 소장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4. 남북 문자 부호 제정의 기본 방향

4.1 민간차원의 관련 학술단체 중심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초기단계의 어려운 정치적 제도적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차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그 가운데도 남북의 정보통신관련 학술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며, 현재 북한에는 민간차원의 학술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의 창설을 돕고 남북한의 학술대회를 통하여 학자와 기술자들이 만나서 효율적으로 기술을 교류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 대체로 남북간 교류는 경제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일하게 학술교류가 열려있는 부분은 바로 정보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주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역시 학술교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바세나르 협약을 적용 받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학자들이 논의하는 내용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앞으로 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산업의 표준화에 대하여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루어 나가는 측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4.2 정보산업의 기술표준 통합 방안

산업표준 17개 분야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는 세부적으로 X00 ~ X06까지 있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될 경우 각 분야에서 이 분야의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금강산에서 한국관광객들을 위한 국제전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이 방면에서 경험이 없으며, 또한 북한의 IT 관련 국수도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남북의 기술표준의 통합을 위하여 국제표준기구 활동에서도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의 상설화와 같은 노력이 절실한 데 이러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술표준을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표 4.1 정보산업 분야 및 등록 범규

분 야	부 호	등록 범규 수
정보산업	X00	39
정보처리 용어 일반	X01	85
문자세트 부호화 및 보안	X02	91
정보기술용 언어	X03	64
데이터 통신망	X04	39
정보기기 데이터 저장	X05	100
정보기술 응용	X06	130

또한 최근의 일부 문서를 보면 북한에서도 국가규격제정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국제화와 관련이 깊은 분야인 자모순, 자판, 코드, 용어 등의 분야에서 남한안 일변도인 현상상을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최근년에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주력 사업의 업종을 정보산업으로 꼽고 있으며, 우수인력 양성만으로 사회간접시설의 큰 확충없이 쉽게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단번도약'을 꿈꾸고 있다[12]. 그렇다면 국내산업의 육성과 국제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표준화일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 앞으로 개방된다고 할 때 조선글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문자코드의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이 분야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며 국가적 체면의 문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현실은 북한의 산업이 취약하고 시장이 작은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상대적인 면에서도 남한과의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것은 현재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는 사실이다.

4.3 민족고유기술로서 계승 발전 도모

언어와 한글문자는 남북이 가지고 있는 민족동질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장기간 분단으로 인하여 언어의 변질과 함께 한글의 자모순 차이가 생겼고, 언어 및 문자처리는 상호 기반이 다른 바탕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 양쪽 기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호보조 관계로 발전시켜 민족고유의 기술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세종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을 시대에 한글이 갖는 사회적 역할은 오늘날 인터넷의 위력 이상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쉽게 깨우칠 수 있는 문자의 발명이며 누구나 자신이 생각한 대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의식의 혁명이며 사람들의 생

서 보면 북한의 조선글 자모순서를 규칙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한글의 자모순서는 낱글자를 부호화 대상으로 하게 되면 기본 순서가 자연스레 된다. 하지만 이 때 조선글의 자모순서는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별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방법은 구상 단계에서 구현단계에 있으며 연구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정음형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남북 문자 부호계 단일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6. 결론

남북 분단으로 빚어진 사회전반의 이질화는 문화전반에 파급되어 있으며 특히 한글과 조선글자라는 내용은 같으나 순서와 이름이 다르게 된 결과를 빚었고 결국 이것은 사전에서 낱말의 나열 순서를 다르게 하고 정보화 시대에 와서 한글 부호와 조선글자 부호가 다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의 최적 자모집단과 문자조합 규칙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살리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글 부호화에서 이것이 간과되고 낱글자와 제자규칙을 무시하고 음절 부호화 방식을 택하고 말았다. 그것은 1974년부터 지금까지 점점 악화 일로에 있었고, 최근 북한조차 같은 길은 선택하고 있는데 남북의 문자 부호 표준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컴퓨터와 한글의 관계에 있어서 컴퓨터는 한글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업의 지적 노동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의 기술개발보다는 그 주체인 한글에 제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치이다. 따라서 마치 연필로 글을 쓰듯이 컴퓨터는 한글과 관련된 작업을 도와줌에 있어서 그러한 기본 철학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유니코드에 3가지 한글 부호의 반영은 표준의 근본적인 이치에 어긋나며 또한 완성 음절형 부호를 기본 부호로 삼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현상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그 해결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제안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북쪽도 이러한 맥락에 있기 때문이며 통일 한글 부호를 제정하기 위한 길목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이해되고 그 해결의 방안을 나름대로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북한이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국제화 부문을 다루었다. 남한 안 일변도로 국제 표준안이 반영되어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독자적인 정보산업 육성은 어려운 것이며 국제 표준에 북한의 국내 표준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2000년도 3월 북경 ISO SC2 회의에서 노력이 그러하고 그 후 7월에 있는 ISO에 대한 수정 요청이 그러한 맥락에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정보교환용 조선글자 두 바이트 부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의 표준기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보교환용 남북 문자부호 표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 양쪽 부호를 모두 버리고 훈민정음 당시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으로 접근을 해야한다고 본다. 현재 양쪽이 채택하고 있는 부호화 방식은 모두 음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모순의 초반부터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거의 99%가 다르다. 이것은 일치시킬 방법을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다. 결국 낱자모로 되돌아가면 그래도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북한의 음가순과 남한의 자형순은 일정부분만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착안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방안은 허배 선생께서 연구하신 결과를 제3안으로 삼아서 남북이 서로의 안을 결국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일치화를 이루지 못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전자의 방법이나 후자 방법 모두가 본격적인 연구를 해서 과학적 검증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준을 하는 목적은 바로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해서는 안되며 신중한 연구가 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정보산업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문화를 담아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문자야말로 도구인 컴퓨터와 함께 앞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요소를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정희성, 수학적 구조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구조, 제1회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 논문집, 1989
- [2] 김충희, 현행 KS 완성형 한글코드의 문제점, 제1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 논문집, 1989
- [3] 변정용,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한글코드 제정 원리, 제3회 한글및한국어정보처리 학술 논문집, 155-158, 1991
- [4] 김명규, "정보교환용 조선글자부호의 표준안에 대하여", '94 코리언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1994
- [5] 변정용,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기반한 공학화와 한글 코드의 발전 방향, 한국정보과학회지, 1994, 9월
- [6] 허배, 본래의 한글 자모 체계, 한국어교육 11.2호, 2001
- [7]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규 9566-97
- [8] 문영호, "국제표준글자부호계에 등록할 조선글자체계의 자모순서문제에 대하여", 제3회 코리언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96
- [9] 최병수, "컴퓨터 조선글 부호체계에 넣어야 할 옛글자에 대한 연구", 제3회 코리언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96
- [10] 변정용, "훈민정음 원리에 따르는 한글 코드 제정 방향", 제3회 코리언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대회, 1996
- [11] 함의문, '96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 학술대회, 1996
- [12] 서재진, 2001년 남북한 관계 및 북한의 개방정책 전망, 통일IT포럼 공개 세미나, 2001